

4월 24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4월 24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실적 안도, 지표 부진 상쇄	<p>애플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전이 주택지표 악화로 인한 우려감을 희석시키면서 소폭이나마 반등에 성공했음.</p> <p>다우지수는 전날에 비해 70.49포인트(0.89%) 상승한 7,957.06으로 마감했고, S&P500지수는 8.37포인트(0.99%) 오른 851.92, 나스닥 지수도 6.09포인트(0.37%)올라선 1,652.21로 장을 마쳤음.</p> <p>전날 장 종료 후 발표된 애플의 '깜짝 실적' 여파로 장초반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실업지표와 주택지표 발표 이후 주요 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선 뒤 장중반 이후까지 등락을 거듭했음. 지역은행들이 대부분 기대이상의 실적을 발표, 금융주를 견인하면서 장 후반 투자심리가 회복돼 상승세를 유지할수 있었음.</p>
애플 등 기업실적 '호조'	<p>애플 주가는 이날 3.3% 올랐다. 애플은 전날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9% 증가했고 순이익은 12억달러로 20% 가량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아이팟과 아이폰의 견조한 매출에 힘입어 시장전망치보다 15% 이상 높은 순이익을 기록했고 애플의 주가는 2%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이베이는 순이익이 22% 감소했지만 역시 시장전망치를 상회해 주가가 12.5% 급등했음.</p>
유가 50불 근접	<p>달러화 약세와 애플 등 기업들의 실적 호전 소식으로 유가가 배럴당 50달러선에 바짝 다가섰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은 전날에 비해 배럴당 77센트(1.6%) 오른 49.62달러로 마감했음.</p>
경제연구소 "독일, 올해 경제성장률 -6% 전망"	<p>유럽의 경제연구소들이 공동 조사결과 독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6% 감소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 보도. IfW, RWI, IHS, Ifo, IWH, Wifo 등 독일의 경제연구소와 스위스의 ETH 등 연구기관들이 참여한 연구조사 결과 독일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3.7%로 증가하고 내년에는 5.5%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p>

제목	주요 내용
LG전자, 중국 CCTV '디지털 TV 파트너' 선정	이번 파트너십에 따라 양사는 CCTV 와 LG로고가 함께 들어간 '파트너십 로고'를 양사가 활용하는 공동 브랜딩은 물론, CCTV 채널을 통해 디지털 TV 파트너십 로고를 노출해 등 중국에서 디지털 기술 확산에 앞장서기로 약속. LG전자는 특히 중국시장서 디지털 방송의 아이콘인 CCTV 브랜드를 마케팅 활동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이번 파트너십이 중국시장에서 LG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日정부, 첨단기술투자 1조엔 펀드조성	일본 정부가 첨단기술에 투자하는 1조엔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닛케이신문이 23일 보도. 일본 정부는 15년 시한으로 '산업혁신기구'를 설립한 뒤 정부와 민간투자자가 2년간 2,000억엔을 출자하고 정부보증으로 최대 8,000억엔의 추가자금을 조달해 1조엔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
1분기 GDP 전분기비 0.1% 증가..플러스 전환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에 비해 0.1% 증가.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 1분기(-7.8%) 이후 줄곧 전분기 대비 플러스 성장을 이어오다 작년 4분기 -5.1%를 기록, 10년여만에 처음으로 역성장 했었음. 그러나 다시 한분기만에 플러스로 돌아선 것임.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늘어났고 수출 감소세는 둔화되면서 전분기에 비해 0.1% 성장. 다만, 전년동기대비로는 4.3% 위축되면서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음.
현대차 1분기 뜯어보니..`수익과 점유율` 맞바꿨다	현대자동차가 올 1분기에 글로벌시장 점유율을 사상최고인 4.7%로 끌어올렸음. 전년동기 4%보다 높아졌다. 핵심시장인 미국에서도 3월 점유율 4.7%로, 전년동기 2.7%에 비해 크게 높아지며 최고치를 기록. 하지만 영업이익은 1,538억원으로, 지난 2000년 이후 1분기 실적중 최저치를 나타냈음. 현대차(005380)가 우호적인 환율 여건에 따른 수혜를 입었지만,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비용이 늘어 결과적으로 시장점유율과 수익을 맞바꾼 셈임.
GM, 5~7월 북미 13개 공장 일시폐쇄	GM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들 미국과 멕시코 공장에 대한 일시 폐쇄 계획을 밝히면서 이를 통해 올해 2.4분기 및 3.4분기 초반에 19만대의 차량 생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GM측은 공장 폐쇄가 5월 시작해 7월 끝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폐쇄 일시는 공장별로 다르다고 전했다. GM측은 일부 공장의 경우 9주간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